‘寺報’ 지역포교 효자노릇 ‘톡톡’

‘혜원’ 지령 200호 맞아 문화행사 열기도
타지역 자녀들에 발송… 포교지 기능도
불교 · 문화 · 생활 정보까지 폭넓게 다뤄

부산 혜원정사가 사보 <혜원> 의 지령 200호를 기념해 개초한 ‘사보표지 사진전’.

통도사, 범어사 등 교구본사급 사찰에서나 발행되던 사보가 최근 몇 년 사이 부산 경남 사찰들과 불교계 복지관 등에서 발행되며 지역 포교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통도사의 사보 <등불>이 11월로 통권 300호를 맞이한 것을 비롯,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혜원정사가 사보 <혜원> 지령 200호를 기념하는 문화 행사를 사보 표지 사진전을 중심으로 열기도 했다. 또한 최근 새롭게 문을 연 범어사포교원 반야원도 개원과 함께 사보 <아름다운 인연>을 발행, 불자들의 신행을 돕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삼광사의 <삼광법회>, 관음사의 <늘기쁜 마을>, 울산불교신도회가 펴내는 <불향>, 감로사의 <감로사>, 밀양 용궁사가 펴내는 <초심>, 홍법사의 <홍법> 등이 문서 포교의 전령사 역할을 다하고 있다.

홍법사의 경우, 타블로이드 한 장으로 발행되던 사보를 32쪽의 소책자로 만들어 호응을 얻고 있다.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사보를 발송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찰 사보가 절에 다니지 않는 지인이나 자녀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포교지로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다.

밀양 용궁사는 사보 <초심> 발간으로 눈에 띄게 신도가 늘어나고 사세가 확장된 대표적인 경우다. 물론 불교교양대학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밀양시민들의 관심을 끌긴 했지만 쉽게 읽히는 사보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사찰로 다가설 수 있었고, 단시일 내에 밀양시의 대표적인 사찰로 자리를 굳혔다.

또한 교계 각 복지관에서도 복지관 소식지 발행이 일반화됐다. 용호복지관의 <천수천안>은 계간으로 복지관 소식과 후원자, 자원봉사자 소개, 복지 관련 정보 등을 담아 전하고 있다. 최근 문을 연 무량수노인요양원도 <무량수> 첫 호 발간을 앞두고 있다. 복지관 소식지 역시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복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서비스를 통해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만드는 간접 포교로 불교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사보에 대한 인식의 변화만큼 사보를 채우는 내용의 변화도 뚜렷하고 사보의 판형도 다양해졌다. 사찰 사보가 해당 사찰의 행사 안내나 홍보에만 그치던 것에서 탈피, 불교 전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끌어내고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으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는 사찰 사보가 그 사찰 신도를 위한 정보 안내 기능을 넘어 사찰에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도 불교 전반과 전통 문화, 생활 정보까지 전해주는 문화 포교지로서의 기능까지 하고 있다는 말이다.

‘부가가치세 절세 전략’에서부터 ‘두부찜 요리법’ ‘선어록’ ‘법문’ ‘신행담’ ‘지혜가 담긴 만화’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한 번 펼치면 끝까지 읽게 만드는 재미와 유익함까지 곁들여 놓았다.

이처럼 사보가 지역 포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신행의 길잡이로 자리 잡으면서 부산 경남의 사찰들에서 사보 발간을 시작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부산 운수사가 사보 발행을 준비 중이고, 사보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보완해 내용을 늘이는 사찰도 많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개교 100년, 행사도 100점

1500여 학생 소망 담은 풍선 날리기 등
‘100년史’ 출판기념법회도

종립학교인 금정중학교(교장 현익채)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10월 20일 교내 운동장에서 100주년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10월 15일 오전 10시 금정산 등산대회로 개교 100주년 행사의 출발을 알린 금정중학교는 10월 20일 금정중학교 교정에서 금정대동제 행사를 개최했다.

범어사 부주지 계전 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갖고 이어 1500여 학생들의 소망을 적어 날리는 소망풍선 날리기, 가장 행렬, 사물놀이 축하공연, 금정가요제 및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축제 행사를 열었다.

또한 다음날인 21일에는 부산 KBS홀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공연 ‘한마음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학생 107명, 교사 22명, 학부모 73명 등 총 230여명이 축하공연을 준비해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개교 100주년을 위해 3년 전부터 결성, 맹연습을 해 온 사물놀이팀의 공연과 교사 7인으로 구성된 교사 밴드 ‘398師(금정중학교의 전화번호를 따서 지은 이름)’의 공연 등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금정중학교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금정중학교 100년사’를 펴내고 10월 12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출판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천미희 기자

“임원단 100명 구성해 포교 매진”

범어사 신도회 재도약 다짐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대성) 신도회(회장 박정현)가 오랜만에 임원 단합대회를 겸한 조촐한 음악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10월 22일 양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염남훈 부회장을 비롯, 박남숙, 최병기 이사 등 27명의 이사진이 새롭게 위촉됐다. 또 향후 100명의 임원단 구성을 목표로 분과별로 전문성을 갖춘 임원단을 꾸려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신도회는, 연 회비 2만원을 납부하며 주인의식을 갖고 활동할 10만 신도 확보를 장기적인 목표로 세우고 9월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임원 정기법회와 월 2회 신도 정기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10만 신도 확보를 위해 1차적으로 6개월이내에 1만 신도확보를 마무리 짓고 공식적인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제36회 교학연구발표회
청소년 포교기금 전달도

불교교육연합회와 전국교법사단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 해동고등학교과 남태평양호텔, 통도사에서 제36회 교학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19일 남태평양 호텔에서 열린 환영식에 이어 불교교육연합회 총회, 전국교법사단 총회가 각각 열렸다. 둘째 날인 20일에는 해동고등학교에서 교학연구발표회가 열렸으며, 통도사 불적답사와 교법사단 모임이 이어졌다. 셋째 날에는 불교문화 특강을 가지고 회향됐다. 천미희 기자

밀양 표충사 사명제전 성료

경남 밀양 표충사(주지 청운)는 제2회 표충사 사명제전을 10월21일부터 22일까지 표충사 경내와 영남루에서 개최했다.

제2회 사명제전에서는 21일 열린 사명대사 추모 전국 한글 백일장을 비롯해 다도시연 및 시음회, 디카폰카 촬영대회, 작약산 영산재,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다.

22일 표충사당에서 열린 526회 추계향사는 서산, 사명, 기허 선사의 영전에 전통 유교식 제향을 올리고 발원문 낭독, 엄용수 밀양시장의 봉행사, 표충사 주지 청운스님의 인사말 순으로 봉행됐다.

이은아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청정운동’ 부산에서도 펼친다

감로사서 ‘내가 바뀌어야…’ 주제 법회, 신행수첩 나눠줘

대한불교진흥원 청정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송석구)는 10월 24일 감로사(주지 혜총)에서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서 청정운동추진위원회 송석구 위원장은 “왜 다시 청정운동인가라고 묻는 이들도 많지만 청정운동은 부처님의 깨달은바 본래의 세계를 실천하고자 하는 운동”이라며 “보현행원을 근거한 8가지 덕목을 현대적 의미로 풀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매일 매일 점검해 가면서 청정운동에 참여하자”고 말했다.

법회에 앞서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은 송석구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청정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감로사에서 청정운동의 첫 씨앗을 뿌리게 돼 영광스럽다”며 “모든 불자들이 나부터 청정해지는 노력을 기울여 밝고 맑은 세상을 가꾸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흥원이 펼치고 있는 청정운동은 대원 장경호 거사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된 진흥원 20주년을 맞은 기념사업으로 1995년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2006에는 8가지 실천 덕목을 제시하며 지역순회 법회를 열고 있다.

이날 열린 법회에서는 매일의 자기 점검이 가능한 신행수첩을 나눠주며 청정운동에 대한 인식과 동참의식을 높였다.

천미희 기자

종립학교에도 풍경소리 울린다

부산 해동고교 교내 20여곳에 게시판 설치

지하철 각 역사마다 설치돼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여운을 주며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풍경소리. 그 은은한 풍경소리가 종립학교에도 울려 퍼진다. 종립학교에 풍경소리가 설치된 것은 전국에서 부산이 처음.

10월 16일 부산 해동고등학교(교장 강석표) 교내 곳곳에 20개의 풍경소리 게시판이 설치(사진)된 것을 비롯 향후 다른 종립학교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안정수 해동고 교법사의 기획으로 진행된 종립학교 풍경소리 게시판 설치는 풍경소리 부산지사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해동고 강석표 교장은 “읽고 잊어버리더라도 마음을 울린 글은 언젠가 학생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가르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풍경소리 부산지사는 앞으로 부산에 있는 종립학교인 금정중학교, 해동중학교에 연내에 풍경소리 게시판 설치를 완료하고 군법당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천미희 기자

5분이면 나도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중에서 작명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엄선하였습니다.
• 320여 가지의 성을 한자의 획수별로 분류하여 2획으로된 성부터 22획 성까지, 상생의 원리와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까지 조화를 이루어 성씨별로 2000개에서 3000여개의 이름들을 엄선하여 이름풀이까지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 이름, 법명, 법호, 상호, 기타 작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작명의 대가가 될 수 있도록, 작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한 이름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름을 원하십니까? 작명, 개명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이름이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재물을 풍요롭게 하는 이름은 있습니다.
원하는 이름을 작명하는 것은 작명가의 능력입니다.
역학 개인 지도
◆ 모집인원 : 3명(선착순) ◆ 자 격 : 남 · 여, 학력, 나이 제한없음
◆ 기 간 : 2006년 12월 1일 부터 3개월(주당 8시간)
◆ 사 주 및 작명의 대가가 되고자 하시는 분(숙식가능)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 정가 50,000 (오만원)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봉 축
대한불교법화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종무원장 혜 각
총무국장 도 광
사 서 지 웅
재무국장 지 성
교무국장 일 우
감찰과장 운 봉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51-102
T.053)766-7231 / F.053)766-7232